

완도 4곳 '무주공산' 장흥 '현 조합장 대항마' 촉각

완도, 조합장 절반이 불출마
2곳은 4자 구도로 경쟁 치열
장흥 9곳 모두 현 조합장 출마
정남진조합장 4선 단독 출마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있는 완도지역은 지난 선거에 이어 올해도 치열한 격전이 재현됐다. 두 곳에서 4명의 후보가 뜨거운 경쟁을 치르며 대결을 펼치고 있다. 현 조합장들의 연임은 불출마 선언으로 8개 조합 중 4개 조합이 '무주공산'이 됨에 따라 과연 '주인 없는 산'의 새 주인은 누가 될지 관심이 쏠린다.

장흥에서는 9개 모든 조합에서 현 조합장이 출마해 각자 재선 최대 4선 도전에 나섰다. 선거법 개정이 더딘 이유로 이번 선거에서도 현직 조합장의 당선이 유리한 만큼 그들에게 출사표를 던진 도전자들이 이들의 독주를 저지할 수 있을지 관전 포인트다.

●완도-8개 조합·18명 각축전

완도는 8개 조합장 자리를 놓고 18명의 후보가 조합원들의 표심을 사로잡기 위해 고군분투 중이다. 완도에서는 현 조합장들의 연임은 불출마 선언으로 8개 조합 중 4개 조합이 '무주공산'이 됐다. 노화농협은 김중량 현 노화농협 조합장의 연임 도전을 저지하기 위해 김영식 전 노화농협 비상임 감사가 도전장을 내밀었다. 현 조합장이 불출마 해 신인들의 맞대결이 펼쳐지는 소안농협에서는 황형식 전 소안농협 비상임이사·감사와 정중후 전 소안농협 상임 이사가 격돌한다.

청산농협에서는 재선에 도전하는 차동약 현 청산농협 조합장에 이병호 전 청산농협 전무가 도전한다.

지난 선거에서 무투표 당선으로 조합장을 낙점했던 소안수협이 이번 선거에서는 완도 최대 격전지로 부상했다. 소안수협에서는 치열한 4파전이 진행 중이다. 무주공산이 된 조합장 자리를 노리는 이들은 김승채 전 소안수협4·5대의원, 김충열 전 소안수협 비상임 이사, 문철인 전 소안수협 과장, 문승탁 전 소안수협 비상임 이사다.

전남서부어류양식수협에서는 4파전 못지않은 치열한 '1:1' 매치가 성사됐다. 추상근 전 전남서부어류양식수협 비상임 이사와 이동홍 현 다해수산 대표가 경쟁한다. 완도산림조합에서도 4파전이 진행 중이다. 완도 산림조합의 새 대표가 될 후보들은 문정빈 전 완도산림조합 직원, 이경동 전 전남도의원, 김상철 완도산림조합 비상임 이사, 박봉욱 현 장보고연구회 이사장이다. 조합원 수만 6000명에 달하며 완도지역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완도농협은 김미남 현 완도농협 조합장이 단독 출마해 임기를 이어간다. 완도 농협은 지난 선거에서 고급, 약산, 금일, 신지 등이 완

도읍과 통폐합되면서 거대 규모 농협으로 거듭났다.

금일수협 역시 도전자가 없어 서광재 현 금일수협 조합장이 손쉽게 연임에 안착했다.

●장흥-9곳 조합·20명 격전

장흥에서는 9곳 선거구에서 조합장 선거가 치러진다. 이번 선거에는 총 20명의 후보가 출사표를 던졌다.

눈길을 끄는 부분은 9개 전 조합에서 현 조합장이 출마했다는 점이다. 각자 3선, 재선 도전에 나선 조합장들에 출사표를 던진 도전자들이 이를 저지할 수 있을지 관전 포인트다.

지난 선거에서 지역 최대 격전지로 주목받았던 관산농협은 이번 선거에서 '1:1' 맞대결이 펼쳐진다. 현 조합장이 불출마를 선언한 가운데 정운상 현 관산농협 대의원에 오형주 현 마늘생산자조합지회장이 빈 산의 주인이 되기 위해 나섰다.

용두농협에서는 치열한 3파전이 진행 중이다. 지난 선거에서 현직 조합장을 누르고 조합장 자리를 꿰찼던 백찬인 현 용두농협 조합장의 독주를 막기 위해 박필주 전 인삼영농법인 이사, 남인현 전 용두농협 직원이 도전장을 내밀었다.

용산농협의 김성용 현 용산농협 조합장 역시 지난 선거에서 현직 조합장의 질주를 저지하고 조합장 자리를 꿰찼던 인물이다. 조합원들의 지지를 얻고 있는 김성용 현 조합장의 아성에 도전하는 후보는 박철환 전 용산농협 전무, 이병훈 전 용산농협 이사다. 두 사람 모두 현 조합장에 못지않은 두터운 지지를 얻고 있어 각축전이 예상된다.

천관농협의 선거 열기도 만만치 않다. 후보자가 대거 몰린 천관농협에서는 3선에 도전하는 김외중 현 천관농협 조합장에 3명의 후보가 대항마로 나섰다. 김진환 전 천관농협 직원, 김복만 전 천관농협 감사, 이준희 전 수협 직원이 치열한 경쟁을 벌인다

장흥축협은 지난 선거에서 치열한 5파전 끝에 당선됐던 김재은 현 장흥축협 조합장에 김양훈 전 장흥축협 감사가 도전한다.

장흥 산림조합에서는 3인의 후보가 치열한 경쟁을 펼친다. 현 조합장이 불출마 한 이곳에서는 백필주 현 장흥표고버섯연합회장, 김병량 현 표고생산유통협회 이사, 최재환 전 산림조합 직원이 경쟁한다.

세 곳 조합에서 현 조합장들이 무투표 당선을 확정 지으며 연임을 이어간다. 안양농협은 김영중 현 안양농협 조합장이 단독 출마했으며 장흥수협은 이성배 현 장흥수협 조합장이 단독 출마했다. 정남진농협은 강경일 현 정남진농협 조합장이 단독 출마해 조합장 자리를 다시 한번 꿰차며 4선을 확실시했다. 김은지 기자

완도·장흥 출마자

완도 노화농협	1 김중량 (62) 목상고 출 현 노화농협 조합장	2 김영식 (65) 노화중 제직 전 노화농협비상임 감사	소안농협	1 황형식 (64) 완도수상고 출 전 소안농협 비상임이사	2 정중후 (64) 목상고 출 전 소안농협상임 이사	완도농협	김미남 (64) 성희대 출 현 완도농협 조합장	청산농협
금일수협	1 차동약 (62) 세한대 출 현 청산농협 조합장	2 이병호 (60) 광주농고 출 전 청산농협 전무	서광재 (64) 완도금일고 출 현 금일수협 조합장	소안수협	1 김승채 (62) 전남대경영 대학원 수료 전 소안수협4·5대의원	2 김충열 (64) 수산벤처대경영교육과정 수료 전 소안수협비상임 이사	3 문철인 (50) 소안고 출 전 소안수협 과장	4 문승탁 (51) 목포과학대 출 전 소안수협비상임 이사
전남서부수협	1 추상근 (61) 조선대학원공학 석사 전 전남서부수협비상임 이사	2 이동홍 (53) 현 다해수산 대표	완도산림조합	1 문정빈 (56) 전남대 석사 휴학 전 완도산림조합 근무	2 이경동 (68) 완도수상고 출 전 전남도의원	3 김상철 (71) 목포과학대 출 전 완도산림조합비상임 이사	4 박봉욱 (68) 목포과학대 출 현 장보고연구회이사장	
장흥 관산농협	1 정운상 (55) 전남대 중퇴 현 관산농협 대의원	2 오형주 (62) 한국방통대 출 현 마늘생산자조합지회장	안양농협	김영중 (57) 성희대 출 현 안양농협 조합장	용두농협	1 박필주 (63) 동아보건대 출 전 인삼영농법인 이사	2 남인현 (64) 전주농림고 출 전 용두농협 근무	3 백찬인 (63) 광주금호고 출 현 용두농협 조합장
용산농협	1 박철환 (58) 농협대 출 전 용산농협 전무	2 이병훈 (56) 강진농고 출 전 용산농협 이사	3 김성용 (51) 순천공고 출 현 용산농협 조합장	전남진농협	강경일 (65) 경성고시 고졸 현 정남진농협 조합장	천관농협	1 김외중 (67) 장흥고 출 현 천관농협 조합장	2 김진환 (54) 장흥고 출 전 천관농협 근무
장흥축협	3 김복만 (68) 대덕중 출 전 천관농협 감사	4 이준희 (58) 동아보건대 출 전 수협 근무	1 김재은 (60) 송의실고 출 현 장흥축협 조합장	2 김양훈 (55) 조대산업대학원 석사 전 장흥축협 감사	장흥수협	이성배 (66) 전남대수산 대학원 수료 현 장흥수협 조합장		
장흥산림조합	1 백필주 (52) 한려대 출 현 장흥표고버섯연합회장	2 김병량 (57) 목포대 출 현 표고생산유통협회 이사	3 최재환 (53) 전남도립대 출 전 산림조합 근무					



기호 이름(나이)
학력
경력

농협함평군지부·함평군선관위, 공명선거 다짐

농협중앙회함평군지부(지부장 이광재), 함평군선거관리위원회는 농협과 선관위가 협업을 통해 유기적인 업무체제를 구축하고 8일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를 위해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함평군지부는 지난 1월부터 함평군선관위 주관 입후보안내 설명회(2월2일)와 후보자회의(2월23일)를 통해 공명선거

실천 결의대회를 가졌으며 유권자 등 지역주민 대상 캠페인을 펼쳤다.

이광재 농협 함평군지부장은 "지역 조합 일꾼을 뽑는 선거를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선관위 업무추진에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함평농협과 천지농협 선거벽보 첩부장소(14개소)를 현장 방문해 선거벽보 첩부상대 등을 점검했다. 조진용 기자

농협 장흥군지부, 서울서 '고향사랑기부금' 홍보

장흥출신 임직원 등 참석

농협 장흥군지부(지부장 이광일)는 3일 농협중앙회 본사(서울 서대문구 소재)에서 농협 장흥출신 임직원들과 고향사랑 기부제 홍보 및 기부금을 기탁했다고 5일 밝혔다.

장흥 출신 농협 임직원인 위성범(금융노조 NH농협지부 중앙본부위원장), 김용전(농협네트웍스 단장), 이광일(장흥군지부장), 김영중(안양농협조합장)과 장흥군 농협 재경향우회 회원 20여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장흥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뜻을 모으고 고향사랑기부제 안정 정착과 기부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농협장흥군지부가 3일 장흥출신 농협 임직원들과 고향사랑기부금을 기탁했다.

이광일 지부장은 "장흥을 사랑하는 농협향우의 기부 참여에 감사드린다"며 "더

많은 분들이 고향사랑기부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추진해가겠다"고 말했다. 장흥-김진환 기자